

신년인사

회원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택과 사람들'을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화두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특히 주택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앞으로 공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업계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시장경제의 기본 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외면한 인기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도 우리 주택업계에는 많은 어려운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지난 IMF의 위기를 넘은 슬기와 용기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 가격안정화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도 회원가족 및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

